



에디슨賞 수상한 李宗勳 한전사장

대담 :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
장소 : 한전사장실
일자 : 7월 10일 오후 3시

“북한 경수로 건설로 우리기술 과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에디슨상을 아시아 최초로 수상한 한국전력李宗勳사장은 “우리 한전의 기술과 우수성을 인정받게 기가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또 이사장은 “앞으로 착수할 북한 경수로공사를 통해 남북한의 신뢰기반을 다지고 평화통일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바쁘신 가운데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에디슨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에디슨상이란 어떤 것이며 이 상을 수상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한전기술 인정 계기

고맙습니다. 에디슨상은 ‘전력사회에 시상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을 주관하는 에디슨전기협회는 2백50여개의

전력회사가 가입한 세계 전력산업계의 대표단체지요. 전력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심사하여 주는 상은 에디슨상 뿐이며 전력산업계에서는 모두가 탐내는 권위있는 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계적인 전력회사인 프랑스 전력공사나 일본의 동경전력 같은 회사도 아직 받지 못한 상인데 우리가 이번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수상한 것이지요. 저는 무엇보다도 세계 전력산업계로부터 한전의 우수성

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기쁩니다. 이는 저 개인만이 아니라 한전 전 임직원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상에 따른 기쁨 못지않게 현 위상을 지키고 아울러 더욱 발전하는 회사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 한전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부문이 크다고 봅니다. 특별히 요즘 한전의 정보통신사업진출과 대북경수로사업은 국

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과학기술
면의 역할이라 봅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
경수로사업에 대해 좀 설명해 주셨
으면 합니다. 현재 북한 경수로사업
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쯤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될 것으
로 보시는지요.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

잘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북한 경
수로사업은 94년 10월 제네바에서
미국-북한간 기본합의문 공식 서명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시작되었
죠. 이후 지난 96년 3월 한전이
KEDO로부터 북한 경수로사업의
주계약자로 지정됨에 따라서 한국표
준형 원전의 건설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전은 사업의 선행요건
및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KEDO와 사업전 용역(Pre-project
Service)계약을 체결하고 지형측
량, 예비지질조사 등을 위해 여러
차례 현지 조사를 하였는데, 신포

지역이 원전부지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KEDO와 한전간 초기현
장공사 계약 체결, 신포 현장사무소
설치 등의 구체적인 준비가 완료되
면 여름중에는 초기현장공사를 착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공사는 선결과제인
KEDO와 북한간 잔여 후속의전서
체결과 회원국간 재원조달문제 합의
그리고 KEDO와 한전간 본공사 계
약 체결 등이 이루어진 후 시작될
예정입니다.

■ 북한경수로 사업의 의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겠는지
요.

사실 남북한 분단 이후 상호교류
라고 할 만한 사업이 거의 없지 않
았겠습니까. 북한 경수로사업은 단
순한 발전소건설사업이 아니라 분단
이후 최대 규모의 남북한간 직접적
교류라는데 큰 의의가 있어요.

앞으로 본격적인 공사추진시 인적
·물적 교류의 활성화, 남북 당사자간
의 수시 접촉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

장완화에도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남
북한간 대화와 신뢰기반을 조성함으
로써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요.

또한, 북한에 건설될 한국표준형
원전의 우수성을 공인받고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수준이 세계적임을 인정
받아 한국표준형 원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북한 경수로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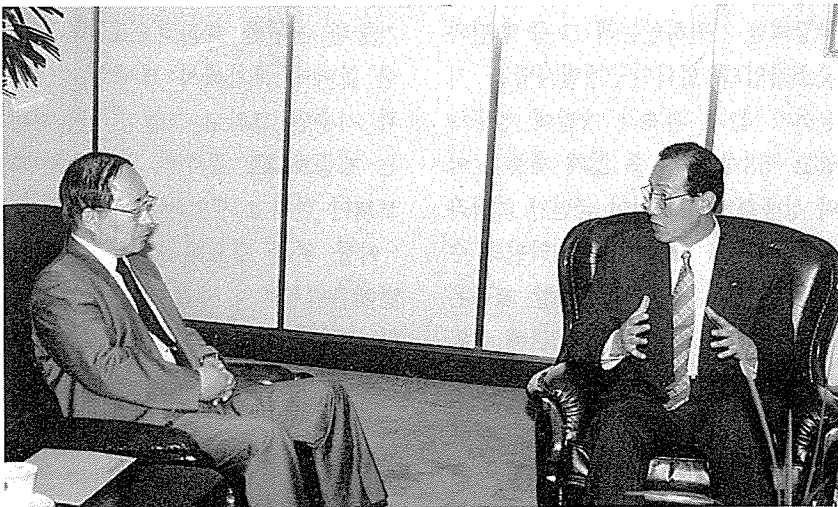
북한인력대상 기술교육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
다만 북한 경수로사업은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해왔던 원자력발전소
건설과는 사업환경이 현저히 달라
요.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로, 방파제, 물양장 등 기반시설
이 확보되고 수많은 인원이 동원되
어야 하는데 북한현장은 기반시설은
물론 생활편의시설이 거의 없고, 근
무자들도 제한적 지역 내에서 생활
해야 하는 등 고충이 생각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안마
다 집행이사국인 한·미·일의 동의
와 이해를 구해야 하고 KEDO와
북한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추진이
중지되는 사업 외적 변수가 발생하
기도 하죠.

아울러 내국도 아닌 특수한 장소
에서의 건설은 지금까지 유사사례가
없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서 국내관련 법규의 정비도 필요하
나 아직은 미비한 상태라 조금 답답



▲ 이종훈 한전사장(우측)이 이광영 본지편집위원에게 에디슨상 수상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 마음입니다.

■ 북한 경수로사업을 통해서 남·북간 과학기술 협력 면에서도 큰 물꼬를 트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 경수로 사업을 통해 남북한간의 과학기술협력 및 교류도 자연스럽게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건설과정에서 상당수의 북한 기술자들과 기능인력이 우리 기술인력과 함께 작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의 앞선 시공기술을 익히게 되고 둘째는 통신의정서에 따른 남북한간 직접적인 통신 개통, 그리고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남북 의료진의 공동 진료 등의 가능성에 따라서 관련기술의 파급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전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규제를 담당할 인력과 준공후 발전소 운전을 담당할 운영요원 등 북한인력을 대상으로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기계, 전기, 전자 등의 첨단기술을 북한 기술자들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것입니다.

■ 한전의 정보산업 진출배경과 기대는 어떤 것입니까.

한전의 정보통신사업 진출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국가경제를 위해 바람직할 뿐더러 결국 통신사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일조한다는 것이죠.

현재 한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즉, 광통신 케이블 9,400km, 케이블 TV 전송망 26,000km, 철탑과 전주 5백58만기(基)를 보유하고 있는

데 이는 약 8조4천억원에 상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유자원의 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난 94년에 신세기통신에 제3 주주로 참여하였고, 95년에 케이블TV, 96년에는 회선임대사업, 국제전화사업, 그리고 금년부터는 국내전화사업에도 진출했지요.

이러한 정보통신사업 진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우리 회사가 다가오는 21세기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관련사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전은 중소기업기술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성과와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어떤 것이지요.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계속

우리 회사에서는 지난 93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유기술의 무상 제공, 유망기술의 사업화 지원 그리고 기술지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각종 사업 총 9천8백73건에 천57억원 상당액을 지원하였는데 그 중 한전과 중소기업의 협력연구개발사업은 지금까지 41개 과제가 개발에 성공하였고, 53개 제품 중 23개 제품은 이미 상품화가 완료되어 금년만 하더라도 3백53억원의 내수와 38억원의 수출이 예상되는데, 특히 개발 제품은 대부분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해 출원하였거나 준비중에 있지요.

앞으로는 지원사업을 금년말로 종료하고 98년부터 지금까지의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기업의 의견도 수렴하여 새로운 방안

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물론 계속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새로운 지원계획에 포함하고 지원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 이사장님께서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이셔서 과학기술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최근 우리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 있기는 하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도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지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과학기술인들의 노력과 성과가 없었다면 경제가 이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기술인들이 이룩해낸 업적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이제부터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즉, 투입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해서 세계 우수기업과 기술인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제품보다도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역할이지요.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전국민과 각 단체, 기업 책임자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아울러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㉔